

한국마사회,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재선정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농업 및 농촌발전에 대한 기여 부분을 인정받아 '2020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에 재선정됐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은 3년 이상 농촌마을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력에 크게 기여한 우수 기업·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다. 한국마사회는 2017년 농촌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 시행 및 교류 활성화,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주중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주말 오픈마켓 운영, 농어촌 지역 기부금 지원 등 도농 상생협력 활동으로 농촌사회공헌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이전 활동과 더불어 농촌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 장학관 운영, 농어촌 복지지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지속적으로 농촌 대상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고 전개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농촌 사회공헌 인증기업에 재선정됐다.

김낙순 마사회장, 대한탁구협회 감사패 받아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사진 가운데)이 21일 대한탁구협회(회장 유승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996년 여자팀으로 창단한 한국마사회 탁구단은 우수한 성적을 내며 명문팀으로 발돋움했다. 현재는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현정화 감독과 국가대표 서효원 선수 등이 소속되어 있다. 2019년에는 남탁구단도 창단하며 주세혁, 정상은 등의 선수들과 함께 대통령기 탁구대회 우승을 일구며 정상급 팀으로 올라섰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포츠 현상이 유례없이 위축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탁구 저변확대, 신예발굴 등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운동선수가 경기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마사회는 탁구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선수단의 소양 강화와 결출한 건전한 스포츠맨십 확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라이징스타' 경주마들은 지금?



다시 경주로를 달릴 그날을 기다리며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스타 경주마들. 스프린트 시리즈를 노리는 단거리 적성마 '어마어마', 단거리 경주 강자인 국산마 '이스트제트', 대통령배 우승을 노리는 최강 국산 3세마 '터치스타맨'(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실전처럼 맹훈련 '어마어마' 훈련보단 휴식 '터치스타맨'

'이스트제트' 단거리 강화에 집중

지난해에는 기존 강호들의 활약도 눈부셨지만 경마 중단과 무고객 경마 재개를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신성들 또한 돋보인 한 해였다. 단거리 강자, 국산마의 자존심 등 자신만의 타이틀을 무기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할 경주마는 누구일지, 그들은 어떻게 이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 '라이징스타' 경주마들의 근황을 살펴본다.

●스프린트 시리즈 노리는 '어마어마'

(수, 4세, 미국산, R88, 송문길 조교사, ♀나스카 마주, 승률 71.4%, 복승률 85.7%)  
 데뷔전에서 1000m를 58초 9에 주파했고, 이후 일반경주에서 줄곧 대차 우승했다. 지난해 대상경주 첫 출전이었던 SBS스포츠스프린트(GⅢ, 1200m)에서 목차(0.6m) 승부 끝에 입상하며 급이 다른 경주마임을 보여줬다. 이어진 서울마주협회장배(GⅢ, 1200m)에서는 문세영 기수와 호흡을 맞추며 결승선 직전까지 이어지는 승부 끝에 3/4마신(약 1.8m)로 아쉽게 준우승했다.

단거리 적성마답게 스타터 반응도 빠르고, 펄팅타입(결승선 전방 200m부터 결승선까지의 거리)도 점점 줄어나가며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1400m 1등급 일반경주에서 1분 23초 1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등급 경주마들의 같은 거리 평균기록은 1분 25초 7이다. 단 2초의 차이지만, 경마에서는 1초마다 약 6마신(약 14.4m)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2마신(약 30m)이나 앞선다.

경주로에서 모래를 밟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어 다양한 작전 전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실전과 닮았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올해 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스프린트 시리즈를 비롯해 코리아스프린트 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송문길 조교사는 "지난해 성적으로 경주력은 이미 검증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작년보다 올해에 더욱더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주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거리 국산마의 자존심 '이스트제트'

(거, 4세, 국산, R107, 서인석 조교사, 김영구 마주, 승률 80%, 복승률 80%)  
 지난해 서울마주협회장배(GⅢ, 1200m)에서 레이팅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 '모르피스' 등을 꺾는 이변을 선보이며 국산마의 자존심을 세웠다. 단거리 경주 강자로 독보적인 기세다. 지난 15일 새해 첫 경주에서도 먼로 기수와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4마신 차로 여유롭게 승리했다. 서울마주협회장배 우승 이후로 3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승 기류를 타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3세마 기대주를 넘어 올해는 4세 국산 대표마로서 최상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스트제트'를 '실전에 특히 강한 말'이라고 평한 서인석 조교사는 "스피드

지수와 유연성이 좋아서 선·추입을 잘하기 때문에 올해는 단거리 대상경주에 조금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미 먼로 기수가 이스트제트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호흡도 최상인 만큼 컨디션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0 최강 국산 3세마 '터치스타맨'

(수, 4세, 국산, R83, 김영관 조교사, 우만식 마주, 승률 41.7%, 복승률 58.3%)

지난해 KRA컵마일(GⅡ, 1600m)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 2000m)에서 우승한 국산마다. KRA컵마일에서 결승선 직전까지 이어진 '케이엔로드'와의 대결에서 힘의 우위를 보이며 기본 좋은 시즌 출발을 했다. 코리아스타터에서 다소 운이 좋지 않았으나, 연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여유롭게 우승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테스타타'와 '우스터치'의 자마이자 '메니피'의 외손자마로 트리플크라운 도전 때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이후 2등급 일반경주에 꾸준히 출전하며 전력을 가다듬어 왔다. 최근에는 올 하반기 대상경주를 위한 컨디션 비축을 위해 휴양을 떠났다. 올해 목표는 대통령배 트로피다. 김영관 조교사는 "터치스타맨은 장거리 대상경주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발능력 등 기본기와 지구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배와 그랑프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닉스고 '페가수스컵' 우승 벌써부터 씨수말 기대 UP

경주능력이 뛰어난 경주마는 그 DNA를 자마에게 그대로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경주마는 몇 백 마리의 자마를 생산하기 때문에 스타 경주마가 전체 말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

엡섬더비에서 우승했고 2001년 유럽3세 마 챔피언에 올랐던 경주마 '갈릴레오'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2008년, 2010년, 2019년 리딩사이어(그 해 최고의 씨수말)로 등극했다. 당시 회당 교배료가 60만 유로(약 8억 원)로, 2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3일 미국 페가수스 월드컵에서 우승한 '닉스고'가 한층 더 주목받는 이유도 우수한 경주 성적에 힘입어 내년 이후 씨수말로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닉스고'의 조교사 브래드 콕스는 블러드호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닉스고'의 우승 이력을 손꼽으며 씨수말로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현지에서 씨수말로 데뷔한 뒤 한국에 들어와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말산업을 확장하고 생산능가를 지원하기 위해 씨수말 자원 확보에 힘써 왔다. 혈통이 좋고 경주 능력이 우수한 외산 씨수말을 수입해 무상 또는 저렴한 교배료를 책정해 경주마 생산농가에 보급했다. 2006년 '메니피', 2013년 '한센' 등을 30억~40억 원에 수입해서 생산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경주마 경매시장이 위축됐던 지난해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2세마의 무마도 역시 '메니피'였다.

한국마사회는 해외의 우수 씨수말 자원을 일찌감치 확보하기 위해 케이닉스(K-Nicks)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잠재력을 지닌 종마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닉스고'는 케이닉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가 2017년 미국 켈랜드 9월 경매에서 구매한 경주마다. '닉스고'는 지난해 브리더스컵 우승에 이어, 올해 페가수스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18전 6승의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달 개최되는 2000만 달러 상금의 사우디컵에서도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경주능력으로만 보면 '닉스고'가 '메니피' 등 국내에 도입된 씨수말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몸값의 34배에 달하는 상금을 벌어들인 '닉스고'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씨수말로서도 성공을 해야 케이닉스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용운 기자

**빠르게 사라져가는 참지 못할 통증 바르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

**신통크림 런칭기념 30일간 무료체험**

지금 전화 주문하시면, 만족하지 못해 반포하셔도 사용하신 정품 150ml 1개를 그냥드립니다.

(반포시 왕복 택배비 6천원만 본인부담, 체험사용분 1개는 무료증정)

**평생 고생하신 나이드신 부모님께...**

늘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 딸들

※ 온가족 함께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통증의 고통~ 더이상 참지 마세요!

**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

계좌 : 농협 1661-0110-09 / 예금주 : (주)건강100세

팔, 다리, 등,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발목, 팔꿈치, 발꿈치, 종아리, 허벅지, 목, 발라만 주세요

스프츠/ 골프/ 등산/ 낚시/ 자전거/ 운동전후

**빠르고 효과적인 신통크림 1통(150ml)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몸 어디든 아픈 곳에 발라주세요 신통크림 적당량을 골고루 문지르면 쉽게 스며들어 끈적이지 않습니다.

생체친화적 고기능 물질인 펩타이드가 무려 7종  
MSM(식이유황) 성분이 아낌 없이...  
값 비싼 캐비어 추출물

백련초 열매 추출물  
녹차칼러스배양 추출물  
들깨오일 등 33가지 전 성분을 확인 비교해 보세요

**신제품 출시기념 대파격 할인**

1세트 5개월분(150mlX5통)+(1통 체험분) 465,000원 **49,800원**

무이자 6개월 / 신용카드 (1세트) 배송비: 3,000원 / (2세트)주문시: 무료배송

2세트 12개월분(150mlX12통)+(1통 체험분) 396,000원 **99,600원**

문의 ☎ 1661-0110